



담화문

## 코로나19와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3개월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지금, 먼저 감염병 예방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 여러분께,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감염병 예방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대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각 가정에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신앙의 삶을 지속해오신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분들, 투병 중인 분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장한 이번 감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감염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그분들의 임종과 배웅의 자리에 친지가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고 슬픔에 잠겨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감염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특히 상태가 위중하신 분들과 죽음의 문턱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이 병환을 잘 견디고 이겨내

시기를 기도합니다.

### ☞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염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녕이 타인의 안녕과 무관하지 않으며, 타인의 안녕이 나의 안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타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의 생명이 타인의 생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선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자유를 빛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이른바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가 빛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꺼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불편을 받아들인 시민들, 몇 장의 마스크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경찰서에 기증했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뛰어든 의료인들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이웃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유는 더 큰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